

 제주발전연구원	<h1>보 도 자 료</h1>	담당	사회복지문화팀
	2009년 10월 28일(수요일)	연락	정영태 초빙연구원 011-9584-3992

일·가족 양립을 위한 지속적인 의식전환 프로그램 필요

- 제주발전연구원 “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 조사 및 가족정책 연구”에서 제언
 - 일·가족 양립을 위한 지속적인 의식 전환 프로그램으로 출산과 돌봄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문화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. 또한 아동양육비와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, 노인 돌봄을 위한 인프라 연계가 필요하다.
 - 제주발전연구원은 정책과제 “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 조사 및 가족정책 연구”에서 이같이 제언했다.
 - 이번 연구에서 제주지역 가족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.
 - 가족 형성
 - 결혼 당시 배우자를 선택하는 요인으로 집안, 능력, 가풍 등 3가지가 중요 관심사로 나타났으며, 집안의 분위기가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응답되었고, 비슷한 수준과 분위기가 좋은 집안에 성장하고 경제적인 부분 역시 서로 비슷한 배우자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
 - 부부 관계
 - 부부간의 의사결정에 있어 자녀교육문제, 생활비관리, 투자 및 재산관리는 주로 아내가

비교적 의사결정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그 밖의 영역은 부부가 협의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

- 부부 갈등의 원인은 부모 부양, 제사에 대한 갈등은 비교적 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당사자 간의 갈등과 자녀, 경제적인 문제가 갈등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

○ 결혼에 대한 가치관

- 현재 미혼이라면 결혼 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하여 예 대한 물음에 반드시 한다 15.2%, 되도록 할 것이다 33.6%, 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22.0%,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13.8%, 잘 모르겠다. 15.4%로 나타남에 따라 기존 결혼은 필수라는 가치관과 달리 결혼을 선택하는 비율이 35.8%로 나타남에 따라 단독가구의 증가, 만혼, 결혼 기피 현상이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- 결혼 의사 결정에 있어 여성은 10명 가운데 1명만이 반드시 결혼을 한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의 경우 10명 가운데 3명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결혼을 둘러싸고 있는 가치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

○ 가족 가치관

- 공동육아와 공동 가족 부양을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, 여전히 자녀양육 및 가족간호 역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하여 직장을 포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역시 여성을 중심으로 강한 돌봄 이데올로기가 남아있음

○ 노후 생활

- 응답자 평균 67.5%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53.6%, 개인연금 14.1%, 공무원 연금 11.7%, 예금/적금 11.7%, 퇴직금 2.4%, 기타 3.9%, 부동산 2.1%, 주식/채권 0.6% 등으로 나타났음

○ 자녀양육

- 미취학 자녀 가운데 첫째 자녀의 보육방법은 60%가 시설에 보육을 전담하고 있으며, 유치원 16.2%, 자녀의 부모 13.2%, 조부모나 친지 5.9%, 학원 2.9%, 베이비시터나 이웃사람 1.5% 등으로 나타났음

○ 일·가정 양립

- 일·가정 양립을 위하여 결혼을 전후 취업형태에 대하여 결혼직전까지는 전일제 고용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, 결혼에서부터 둘째 자녀 출산까지 가사/학업/무직의 형태가 31.5%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, 둘째에서 셋째 출산 전 역시 가사/학업/무직과 함께 전일제 고용 비율이 23.3%로 나타났음.
- 일·가정 양립을 위하여 가사 분담의 정도에 대하여 여전히 여성의 71.7%가 본인이 가사 노동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

○ 건강과 여가

- 건강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의 39.9%가 건강하다고 응답하였으며, 보통 37.7%, 매우 건강하다 9.8%,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9.6%,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1.5% 순으로 나타났으며, 응답자의 52.9%가 정기검진을 받는다고 응답하였음

○ 지자체의 역할

- 일자리와 관련 지자체 역할로 여성일자리 확대, 자녀를 위한 보육/방과후 시설 강화, 전문/특화 직업 교육 순으로 나타났으며, 일자리와 연계되는 여성 인력 양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으며, 남성은 현장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꼽았다.
- 건강부분에 있어서 여성은 여성암 무료 검진을, 남자는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우선적으로 꼽았다.
-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을 응답하였으며, 다음으로 취업과 창업 및 부업을 위한 직업 교육 기관 등으로 향후 여성정책 수립에 있어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음
- 저출산 대응 정책과 관련 시급하게 추진할 시책에 대하여 여성응답자는 보육료무상지원을, 남성응답자는 출산 축하금 및 장려금 지급을 희망하고 있음
- 직업능력 관련 지역 특성을 고려 제조업 위주의 일자리 창출보다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우선 연계할 것을 희망하고 있음